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6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2월 9일(음력 10월 23일) 수요일(주간)

“조계종서 방편 줘야”

수경 스님, 4대강 비판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장문의 글을 통해 정부의 사업추진을 비판하고 생명과 환경보호에 대한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수경 스님은 12월 3일 발표한 ‘모든 땅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물과 바람은 나의 본체입니다’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오계(五戒)의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수경 스님은 “4대강 사업은 바로 생명 순환의 고리를 끊는 살상행위”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강을 돈과 욕망의 배출구로 만들지 말고, 만물을 살리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범망경에 이르기를 ‘모든 땅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물과 바람은 나의 본체’라고 했다”며 “4대강 개발은 바로 부처님의 법신을 허무는 행위로 생명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반생명 반평화의 미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나와 너,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를 두고 보는 것은 바로 불교의 사회적 존재 의미를 부정 하는 일”이라며 “조계종 어른 스님들이 국민에게 지혜와 자비의 방편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세계일화’ 실천 늘어

지구촌공생회·JTS·로터스월드·더프라미스 구호 ‘활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가 해외 원조에 의지해야했던 시절이 있었다. 해방이후 우리가 받은 원조액만 127억 달러, 한화로는 7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1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한 140여 국가 중 처음이다. ‘받기만’ 하던 한국이 이제 ‘주는’ 나라로 지위가 바뀐 것이다.

이런 가운데, 10여년 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불교국제구호단체들이 하나 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캄보디아에 1000개의 우물을 설치하는 사업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 1월 회향될 ‘생명의 우물 1000’ 사업은 2005년부터 영유아 사망률 1위인 캄보디아에서 자비행을 펼친 결과다. 케냐 · 몽골 우물사업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구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자’는 지구촌공생회의 원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JTS(이사장 법륜)는 긴급구호활동으로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999년부터 지구촌 재난에 적극 대처해온 JTS는 올해 9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 약 3만 달러를 8개 지역, 1371가구에 지원 했다. 2010년 1월부터는 피해지역에 주택 건축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 BWC화엄다목적센터를 세워 의료 ·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디나(9세 여)와 문세이하(6세 남)의 시력을 찾아주고, 현지에서도 연 200여 주민에게 무료시술을 해주고 있다.

더프라미스(The Promise, 이사장 법등)는 지난 2008년 5월 단체를 설립한 이후 인도와 티베트에서 국제개발활동을 펼쳐왔으며, 11월 18일 미얀마에 빼야만(교육의 힘) 중학교를 완공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정사)은 7월 25일 제364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스리랑카에 회당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회당국제학교는 3년간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9,663㎡ 규모의 3층 건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불교계 구호단체들이 낙후된 국가의 재건을 위해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과 함께 유치원, 초등학교, 직업학교 등 교육 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계 구호단체의 활발한 구호활동은 빈곤국가에 희망을 주고 있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 불교계차원에서 협의회를 두어 구호 중복지역을 피하고, 종단에서도 해외포교의 영향력을 염두해 제도정비와 예산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부처님의 자비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구호단체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한결같이 “지구촌 사람들과 우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동체대비심을 발휘해 도와야한다”고 말한다.

지구촌 곳곳에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계 국제구호 단체의 활동에 종단과 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있길 기대한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바람도 드나들 수 없게… 불기 2553(2009)년 동안거 결제일인 12월 1일, 전국 100여 개 선원이 결제법회를 갖고 3개월간의 동안거에 들어갔다. 결제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인제 백담사 무금선원(무문관 수행처)에 방부를 들인 스님들이 무문관의 창문에 문풍지를 바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박재완 기자

법구경

신념과 자기 절제, 적극성, 명상, 올바른 행위, 지혜의 수련으로 고뇌를 넘어야한다.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60-700-1080

금주의 Hot……

빛고을아카데미
청화 스님
14지상중계

이상시문학상
정진규 시인
13불자들

‘승만경’ 강의
도법 스님
23강의실

사람

가수 오은정

“힘들 때 부처님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신곡 ‘절로 저절로’ 지방공연 때 절부터

“내 청춘이 시든~다~ 까치들이 울어주니. 님 오시려나 아~ 울산아리랑~.”

‘울산아리랑’으로 중장년층의 마음을 흔들었던 불자가수 오은정(57)이 이번에는 절집 내음 물씬 풍기는 신곡 ‘절로 저절로’를 부르며 돌아왔다.

‘절로 저절로’는 오은정이 직접 불교공부를 하면서 느낀 감정을 가사로 표현한 경쾌한 트로트풍의 곡이다.

“개인적으로 한창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 때 부처님을 만나 불교공부를 하면서 삶의 괴로움을 벗어 던졌고, 제 마음은 온통 환희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를 새롭게 살게 한 부처님 가피를 노래로 불자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은정은 1988년 대표곡 ‘둥지’로 인기를 얻으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2001년 이혼의 아픔으로 잠시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그 당시는 제게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강원도 춘천의 월천사와 인연을 맺게 됐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 전에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부처님 가피를 받아 다시 방송 활동을 하게 됐네요.”

월천사 주지스님과는 집안 대소사를 논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오은정의 모습에는 조금도 어두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는 오은정은 대한불자가수회 부회장으로 불자가수의 역량을 결집해 음성포교를 펼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스님들과 공양주 보살님들께서 더 좋은 활동을 해달라며, 열심히 음성포교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지방 공연이 잦은 오은정에게는 불자다운 습관이 하나 있다. 바로 지방공연을 가면 제일 먼저 사찰을 찾는 것. 오은정은 “불자가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부처님을 찾아 참배를 드려야 힘이 생긴다”고 웃어보였다.

“기회가 되면 작은 암자를 지어 부처님을 모시며 공양주 보살로서 살고 싶어요. 불자들과 그렇게 어울려 사람냄새 풍기고 사는 것이 제게 마지막 남은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요.”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오은정의 ‘절로 저절로’가 앞으로 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길 기대한다.

이은정 기자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불자님을 위한 특별할인 보급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강력난방

300대 한정판매
TS 7300 (1.2kW) = ~~68,000원~~ ➡ 58,000원
TS 7200 (2.0kW) = ~~78,000원~~ ➡ 68,000원
TS 7000 (3.0kW) = ~~88,000원~~ ➡ 78,000원

초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kW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특별할인가 58,000원
▲TS-7300 적용면적 : 10.56㎡ (3.5평형)
열량/ 1.2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1.2kW×8=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78,000원
◀TS-7000/ WJ3000 적용면적: 24㎡ (7~10평형)
열량/ 3.0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3.0kW×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68,000원
◀TS-7200/ WJ2000 적용면적 : 16.5㎡ (5평형)
열량/ 2.0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2.0kW×8=1,11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상가 등 일반 전기, 산업용전기 사용은 제외)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시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여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 떡도 익히는 고열량 방출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팬션)

구입문의 : 080-810-8800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유정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